

믿음의 성공을 이룬 아브라함

본문 : 창세기 22장 1-24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¹ 이 일들이 있던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²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³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⁴ 삼 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 곳이 보였습니다.

⁵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 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⁶ 아브라함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⁷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⁸ "야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⁹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여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¹⁰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¹¹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¹²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¹³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¹⁴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¹⁵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¹⁶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¹⁷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¹⁸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¹⁹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²⁰ 이 일이 있는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밀가도 당신의 형제인 나홀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²¹ 맏아들은 우스이고, 둘째 아들은 부스이고, 셋째 아들은 아람의 아버지인 그므엘입니다.

²² 그리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도 태어났습니다."

²³ 브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여덟 아들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²⁴ 또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독립시킨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3.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4.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 나무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양을 잡아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5.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자녀이고,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실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으므로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6.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2.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